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99 호

2019 년 3 월 4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3/26)
2.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간담회' 안내(3/29)
3. 제 3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안내(3/13)
4.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화학) 간담회' 결과공유

■ 본부 소식

1.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따른 과학적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주요 업데이트 발표
2. GRI-UNGC, SDGs에 대한 기업 보고 발전 위해 협력 이어갈 것
3. UNGC-B Lab 기업 SDGs에 대한 이행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신규 발간물 소개 - Business School Rankings for the 21st Century (2019)

■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2. [SDGs 솔루션] 화장실을 짓는 화장지
3. [Global Goals in Action]- 사파리콤(Safaricom)

■ UNGC 회원 뉴스

1. "화장품택배 속 구김종이...뽁뽁이보다 비싸지만 환경 생각했죠"
2. SK텔레콤·행안부, 사회적 가치 구현 위해 '데이터 협력'
3. 한국가스공사, '열효율 개선사업'에너지 불평등 해소 일조

■ CSR 뉴스

1. 이원욱 의원, 재생에너지선택권 선언기업과 간담회 가져
2. '사회적 책임' 관심 ↑...자산운용사들, ESG 펀드 잇따라 출시키로
3. "이제는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눈 돌린다"
4. 공공기관, 인권위 권고'인권경영'도입 수용...인권위'민간기업 확산해야'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 (3/2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9 정기총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SDGs CEO 지지 서약> 및 <2019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런칭이 진행됩니다. 또한, 임원 및 이사진 변경, 2018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2019년 사업계획 안내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10:30 - 13:30
-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볼룸(3F)
- 참가대상 회원 대표 및 실무진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2019 정기총회 일정

시 간	프로그래
10:00 - 10:30	등록 및 접수
10:30 - 11:10	본 회의 I. 임원 및 이사진 변경 II. 2018년 주요 업무 실적 및 결산 보고 III. 감사 보고 IV.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11:10 - 11:20	휴 식
11:20 - 11:40	특별강연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11:40 - 11:50	2019 SDGs CEO 지지 서약 및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집 런칭 사진 촬영
11:50 - 12:00	단체 사진 촬영
12:00 - 13:30	오 찬



반기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보아오포럼 이사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국제윤리정책위원회(IIOC) 윤리위원장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석좌교수
前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첨부한 위임장에 서명하시어 3월 19일 (화)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화 02 749 2149/50
팩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초청장 다운받기]

[위임장 다운받기]

[원문보기]

2.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간담회' 안내 (3/29)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간담회

2030년까지의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유엔,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에서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해 기업도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사회투자, 사회공헌, 인권협력 등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탐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KPMG는 6개 분야의 SDGs 산업별 매트릭스를 공동 발간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는 추가 연구 조사를 진행하여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발간물은 산업군과 관련된 협력 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SDGs 각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산업 내 SDGs 전략 및 실질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 일시: 2019. 3. 29 (금) 16시 ~ 18시
- 장소: UNGC 한국협회 사무처 (사당역)
- 대상: 금융 산업군 기업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 (15명 선착순) *Invitation Only
 - <SDGs Compass>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금융> 제공

시 간	프로그램
16:00 - 17:00	- UNGC 및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소개 - 금융 분야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소개 - 목표별 이행 사례 및 우수 기업 사례 소개 - 질의 응답
17:00 - 18:00	- 참가 기업 및 기관의 SDGs 사례 및 활동 공유

■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시리즈



식품류 · 소비자재 (2018.5) 제조업 (2018.6) 헬스케어 · 생명과학 (2018.7) 에너지 · 천연자원 · 화학 (2019.2)

[초청장 다운받기]
[참가신청 바로가기]
[원문보기]

* 참가신청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참가자 정보(성함/소속/직함/연락처)와 SDGs 활동여부를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 원 연구원 (T. 02-749-2150)

3. 제 3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 안내 (3/13)

제 3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에 초대합니다!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약 1천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스크 서베이(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에 의하면 극단적 기상이변' '기후변화 축소/적용 실패' '대형 자연재해' 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 중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3대 리스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관수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업들 또한 탄소배출 및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구매연합(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REBA)" 및 "RE100 콘택트인"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중점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기반온실가스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참여를 통해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의지를 보여주고 기후행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기후행동에 대한 노력 및 의지 표명이 여전히 미진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 중입니다. 이번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기후변화 관련 제도 및 관련 법 현황에 대해 안내 해드리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기업들의 기후행동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3월 13일 14:00 - 16:10 *회의 전 참석여부가 제공된 이메일이나, 참석가능하신 분은 12시 20분까지 후 주시게 바랍니다.
장소: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6층 아라플

참석기관: 국내 기업, 금융기관

공동주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O), CDP한국위원회(CDP)

후원: 한국케타은행

시간	별표	별표자
12:20 - 12:30	등록	
12:30 - 13:30	점심식사	
14:00 - 14:10	축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의원 (TBC)
14:10 - 14:30	1차 케틀콘퍼런스에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환경부 사무관 (TBC)
14:30 - 14:45	O&A	
14:45 - 15:05	"국내 기후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과 전망 점검을 통한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 - 에너지 및 전기사업법 개정 현황, 녹색요금제 제도 준비 상황 -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	CDP 김태현 연구원
15:05 - 15:20	O&A	
15:20 - 15:40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 전기(전기·전자·통신) 산업의 16개 기업과 수송(수송·항공·자동차·조선) 산업의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및 성과, 정보공개 관련 기후행동 현황 분석 -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 제언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
15:40 - 15:55	O&A	
15:55 - 16:10	맺음말	WWF 이정미 국장

참석 링크: <https://goo.gl/forms/Ng1iHv0pExo3VGS6z2>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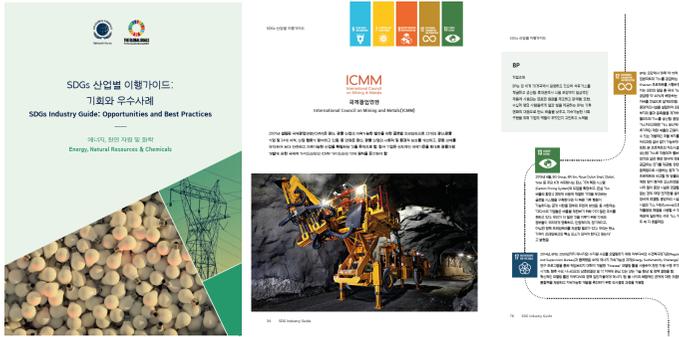


후원



[참석링크]
[초청장 다운로드]
[원문보기]

4.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천연자원&화학>간담회' 결과공유 (2/2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월 27일(수)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편 발간과 함께 본 산업군의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및 플랫폼과 우수 사례, 이행 방법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식품·소비재>, <제조업>, <헬스케어·생명과학>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본 간담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롯데케미칼, 한국화학산업연합회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하기 앞서 "21세기인 지금 SDGs 달성에 있어 기업의 역할은 정보보다도 크며, SDGs 달성은 기업의 성과와 분명한 '원-원' 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에너지·천연자원, 그리고 화학 분야의 선두적인 경쟁사 및 협력사들의 우수 이행사례를 담고 있는 본 발간물과 함께 이번 간담회가 성공적인 지식과 사례 공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서영 UNGC 한국협회 연구원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소개하고, 새롭게 발간한 SDGs 산업별 이행가이드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의 핵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서영 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에너지, 탄소제로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 등 SDGs 이행이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 분야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설명하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를 비롯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 · 협력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많은 선도기업들이 SDGs를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솔루션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멕포스터월러, 에스컴, 약조노벨, BP 등 해외 기업의 SDG 목표별 이행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기업들의 SDGs 사례 및 활동 공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석 실무자들은 자사의 SDGs 활동을 간략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CSR 및 SDGs 이행과 운영의 애로사항과 향후 진행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이은경 책임연구원은 "SDGs가 일부 기업 담당자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으나, 화학 · 에너지 산업에서 논의 되어온 환경 이슈에 연장선상에 있다. 이 산업군은 이미 SDGs의 선도기업들이 많으며, 스마트그리드, 폐기물 최소화, 분쟁 광물 등의 주요 이슈와 이를 기업 전략 및 KPI와 어떻게 통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 성과 평가로서의 사회적가치 추진을 넘어서 내재화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SDGs 및 인권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트렌드에 맞춰 온실가스 이슈를 중심으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기업 전략에 SDGs를

내재화시키는 것에 대한 당위성 및 리더의 인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실무자들은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에 SDGs 와 인권경영을 연계하고, 나아가 사업 지역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SDGs 및 인권경영 목표 선정 및 이행 전략을 수립해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전사적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주류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 업계의 SDGs 이행에 관한 리더십 인식 제고에 대해 모두 공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올해 기업과 인권, 반부패, SDGs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규 회사 및 교육을 원하는 회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CSR · SDGs 관련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화학 관련 산업의 기업 실무자들은 SDGs 이행에 있어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SDGs 이슈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3 월 29 일 금요일, 4 월 5 일 교통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연구자료와 교육을 제공해 회사들의 SDGs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회사 실무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문보기](#)

본부 소식

1.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따른 과학적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주요 업데이트 발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기업들이 파리 협정의 야심적인 목표와 일치하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100 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 지구 기온 상승치를 1.5°C 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최신 정보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술 자원과 업데이트된 목표 검증 기준은 2019 년 4 월에 기업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2018 년 10 월에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최신 과학 정보를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SBTi 는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목표에 맞게 기업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그러한 목표 아래에서 SBTi 의 새로운 기준은 이니셔티브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IPCC 보고서는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1.5°C 를 초과하는 것을 막지 못할 시 발생하는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고, 파리 협정에 명시된 한계점 내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배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SBTi 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주요 기후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 자문 그룹과 협의하여 최신 과학 정보에 맞춰 전략을 실행하려는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배출 감소 경로를 모델링할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BTi 의 파트너 중 하나인 세계자연기금(WWF)의 알렉산더 파산(Alexander Farsan)은 "IPCC 특별 보고서는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야심차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이러한 목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PCC 의 최신 과학 정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게 기대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향해 앞서 갈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Ti 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자연기금(WWF)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최신 기후 과학 정보를

사용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목표 설정에서 모범 사례를 파악하고 검증 기준에 따라 회사의 목표를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기업에게 새로운 수준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과학기반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2019 기후정상회의의 주도로 우리는 탄소 제로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과 야망을 이끌어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5 년 창립 이래 SBTi 는 160 개 이상의 회사의 목표를 승인하였으며, 350 개 이상의 회사가 2 년 이내에 목표를 설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9 년 10 월부터 SBTi 의 업데이트된 목표 기준에 따라,

- 새로운 목표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지구 평균기온을 2 ° C 한참 이하(Well- Below) 또는 1.5 ° C 이하로 제한한 경우만 유효합니다. 기온을 2 ° C 로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습니다. "2 ° C 한참 이하"의 정의는 IPCC 특별 보고서 및 기본 시나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및 새로운 수준의 목표는 SBTi 웹 사이트에 게시되며, 세 가지 범주(1.5 ° C, 2 ° C 및 2 ° C 한참 이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목표가 가장 최근의 기후 과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원래 목표 승인 날짜로부터 5 년마다 목표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5 년에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 원문보기

2. GRI-UNGC, SDGs 기업 보고 발전 위해 협력 이어갈 것

- 기업 보고서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틀(tool) 및 가이드라인 시행 예정

GRI 와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s 에 대한 기업 보고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더 많은 기업들이 SDGs 의 타겟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이 이끄는 액션플랫폼,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Reporting on the SDGs)'은 2017 년 수립되었으며, SDGs 를 향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SDGs 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체점표이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와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며 "SDGs 에 관한 기업 보고는 성과 개선과 가치 창출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팀 모힌(Tim Mohin) GRI 회장은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기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 협력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며, “지난 수 년간 여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측면의 진전 사항들을 보고해 왔는데, 이는 기업이 자사의 임팩트를 관리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을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액션플랫폼은 3 개의 발행물과 함께 SDGs 에 대한 기업 보고에 관련된 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그리고 ‘GRI 지속가능성 보고 스탠다드(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토대로 합니다.

앞으로 2 년 동안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액션플랫폼은 사례 연구와 워크샵 제공, 그리고 정책입안자 및 투자자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사의 기업활동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액션플랫폼은 기업에게 학계와 정치권, 투자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다중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액션플랫폼에 관한 추가 정보(영문)는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 액션플랫폼 참여 기업들의 경험 공유 영상(영문)을 [\[여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본부 자료(영문):

- [Integrating the SDGs into Corporate Reporting: A Practical Guide](#)
-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 [In Focus: Addressing Investor Needs in 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 [원문보기](#)

3. UNGC-B Lab 기업 SDG 이행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B 랩(B Lab)과 함께 전세계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행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년에 발표될 이 공개 툴(tool)은 기업들이 SDGs 달성을 향한 성과를 진단 및 비교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기업에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 사례 및 주요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B 랩과의 이번 협력으로 기업들이 SDGs 에 대한 이행사항을 보다 잘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기업들이 자사의 전략과 활동에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내재화하도록 도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트 홀라한(Bart Houlahan) B 랩 공동창업자는 “B 임팩트 평가 시스템(B Impact Assessment)과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전문성은 사회적·환경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SDGs 관점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매우 자연스러운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SDG 에 매핑된 ‘B 임팩트 평가 시스템 선택 지표’가 포함되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파트너들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발된 새로운 성과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엠마누엘 파버(Emmanuel Faber),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스콜재단(the Skoll Foundation), 그리고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가 후원합니다.

본 온라인 플랫폼 개발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 [양식\(영문\)](#)을 통해 B 랩에 문의바랍니다.

B 랩(B Lab)이란?

B 랩은 비즈니스를 선한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범 세계적 운동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06년부터 B 랩은 기업들이 높은 기준의 성과와 책무성, 그리고 투명성을 가지도록 이끌어왔습니다. 80 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5 만개 이상 기업들이 임팩트 측정에 B 랩의 표준(standard)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3 천여 개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무성을 이행하는 B 콤팩 인증 기업(Certified B Corporation)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35 개 주와 이탈리아, 그리고 콜롬비아가 B 랩을 새로운 기업 규정으로 채택했고, G7 은 전세계 국가들에 B 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원문보기](#)

4. 유엔글로벌콤팩트 신규 발간물 소개

■ Business School Rankings for the 21st Century (2019)



<Business School Rankings for the 21st Century>는 미래 경영자를 육성하는 비즈니스 스쿨이 21 세기의 니즈를 포함하도록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과 실현 가능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경영교육기관이 교육의 질적개선과 함께 평가순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20 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본 발간물은 세계 비즈니스 스쿨과 교육 인가기관, 경영교육 분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아비바 인베스터즈(Aviva Investors)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목표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SDGs Leadership)은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 리더십 사례와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SDGs 이행을 위한 전략, 목표, 영향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한 행동 플랫폼(Action Platform) 중 하나입니다. 동 플랫폼은 LEAD 기업, 유엔 기구, 시민사회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되었습니다.



Goal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업은 혁신, 노동 및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Goal 8 을 이끌어내고,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4 가지 핵심 분야들은 비즈니스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기업들은 자사 및 공급망의 모든 직원들에게 적절한 근무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들과 파트너를 맺어 역량을 구축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가치사슬 전반에 있는 노동인구를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청년 및 장애계층 같은 취약층이 생산적인 노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십은 또한 기존사업장에서, 특히 개발취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노동집약부문에서 공식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R&D 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기여를 하면서 업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니셔티브들을 보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이니셔티브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USINESS ACTION 1

기업과 공급망 직원들을 위한 적절한 근무조건들을 지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급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수사례

- > 의류 회사 A 는 최저생활임금 지불 및 디지털 결제방식을 장려하고 거래 과정이 반드시 올바르게 평가 및 추적할 수 있게끔 공급업체들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합니다.
- > 대형 가구회사 B 는 인도의 아동노동 이슈를 다루기 위해 유니세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아동 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빛, 빈곤, 교육기회부족, 장애, 그리고 질병 같은 아동노동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합니다.



BUSINESS ACTION 2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있는 노동인구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합니다.

우수사례

- > 글로벌 회계법인 A 는 지사가 위치에 있는 지역의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A 는 현지학교에 직원을 봉사자로 파견하여 학생들의 교육 결과 및 구직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 글로벌 음료회사 B 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교육, 실습, 네트워킹, 지역사회 행사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문적 및 개인적인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3

최빈개도국들의 노동집약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우수사례

- > 글로벌 은행 A 는 개발도상국들의 신생회사 및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을 위한 소프트-금융팀을 구성하여 현지 고용률을 높이고 빈민층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합니다.

- 글로벌 식품회사 B 는 상당수준의 원자재를 개도국의 자작농들로부터 조달 받아 현지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BUSINESS ACTION 4

지속가능한 개발과 상호보완이 되는 R&D, 기술에 투자하거나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우수사례

- 자동차 제조회사 A 는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의 전기차(EV) R&D 에 투자하고 태양광 발전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전기차가 지속가능하게 생산된 전기로 운행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기술력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로의 변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 장난감 회사 B 는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TEM 분야에서의 소녀들'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2. [SDGs 솔루션] 화장실을 짓는 화장지

재생화장지를 생산 및 유통하는 *Who Gives A Crap* 은 수익의 50%를 개도국에서 화장실을 만드는 단체에 기부합니다.



Who Gives A Crap 은 적절한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들의 화장지는 100% 재활용 소비 후 종이나 100% 대나무가 함유되어 있는 'tree-free'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 새로운 나무를 벌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화장지는 잉크, 염료 및 향을 첨가하지 않고 생산됩니다. Who Gives A Crap 은 키친타월 및 티슈까지 제품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 절반 가량은 WaterAidAustralia, Sanergy, Shining Hope For Communities 그리고 Lwala Community Alliance 와 같은 위생시설을 구축하는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Who Gives A Crap 은 캄보디아, 동티모르 및 케냐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130 만달러가 넘는 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Why you should care

2015 년, 23 억명이 여전히 기본적인 위생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화장실을 가진 사람의 수보다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6 년에만 87 만명이 수질, 위생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향상된 위생 서비스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예방가능한 질병 및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How the Global Goals are addressed



Good health and well-being

적절한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Who Gives A Crap 은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Clean water and sanitation

Who Gives A Crap 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화장실 접근을 늘리고자 관련 단체들에게 필수자금을 130 만달러 넘게 제공했습니다.



Life on land

매일 27,000 가량의 나무가 화장지 때문에 벌목됩니다. 'tree-free' 화장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새로운 산림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산림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3. [Global Goals in Action]- 사파리콤(Safaricom)



[영상 보기](#)

사파리콤은 목적지향적인 기업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자는 비즈니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내 아동 노동을 배제하고 탄소 배출량의 감소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파리콤은 수 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 대 원칙은 사파리콤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10 대 원칙은 훨씬 후에 발표된 17 가지 SDG 와 매우 일치하는 면이 많아 사파리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원칙 기반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회원사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점이 될 만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공하는 교육 및 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두 회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글로벌콤팩트 케냐협회를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은 개별 기업 혼자서 실현할 수 없습니다. 케냐에서 책임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케냐인 전체에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민간기업에 명확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 가지 목표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하여 케냐 고객에게 유의미한 제품, 서비스 및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민간 기업들은 시민사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 세 부문은 소통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콤팩트는 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7 개의 SDGs 중 9 개를 사파리콤의 사업 전략에 통합하고 2030 년까지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전적으로 사업성과 수익성만 중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업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들은 목적지향적이고 원칙기반의 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UNGC 회원 뉴스

1. "화장품택배 속 구김증이...뽁뽁이보다 비싸지만 환경 생각했죠"

"화장품택배 속 구김증이...뽁뽁이보다 비싸지만 환경 생각했죠"

기사입력 2019/02/25 06:30 송고

'뽁뽁이 비닐' 안쓰고 종이포장-충진재로 바꾼 아모레퍼시픽
바닥까지 쓰는 포션 등 화장품 용기도 친환경 디자인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친환경 종이 충전재 모습. 발집을 연상케 하는 완충재 지아미로 제품을 감싸고 '12' 낱은 부분은 파피용을 구겨 넣어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 아모레퍼시픽몰은 과대 포장과 비닐 사용 문제 등 사회적 이슈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품 배송 상자 안에 '뽁뽁이(비닐 에어캡)' 대신 친환경 종이 완충재 '지아미'와 '파피용'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상자의 표면 테이프의 종이 재질 대체, 포장 상자 슬림화, 그리고 상자의 핫핑크 코팅지 제거를 통해 물류 과정에서 포장 비닐 사용량을 이전의 30% 수준(연간 94t)까지 줄였다고 밝혔음.
- 화장품 용기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었으며, 2018 년 신제품 기준으로 총 500 여개 제품의 단상자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에 주어지는 'FSC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하는 등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심미 효과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용기를 꾸준히 개발 중임.
- 아모레퍼시픽은 그룹 차원에서 '2020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촉진 ▲함께 하는 성장 구현 ▲순환경제 기여를 3 대 지향점으로 발표했으며, 40% 이상의 신제품에서 환경·사회 친화적 속성을 한 가지 이상 구현하겠다고 제시했음.

[연합뉴스](#)

2. SK텔레콤·행안부, 사회적 가치 구현 위해 '데이터 협력'

SK텔레콤·행안부, 사회적 가치 구현 위해 '데이터 협력'

SK텔레콤·행안부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 MOU 체결

입력: 2019.02.18 16:26 / 수정: 2019.02.18 16:26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SK 텔레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 일 밝혔다.
- 이번 협력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 텔레콤은 T 맵과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통신데이터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계획이고 소셜임팩트를 불러오는 분석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수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함.
- 양측은 이번 협력 및 과제 발굴이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BizFACT](#)

3. 한국가스공사, '열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불평등 해소 일조

클린리더스

한국가스공사, '열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불평등 해소 일조

입력: 2019.02.17 19:00



한국가스공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지난해 7월 이충항·단열재 설치 등 '열효율 개선사업'을 마친 대구 동구의 한 범죄피해 가정에서 환자를 침대를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가스공사는 지난해 12 월 대구시 북구 '멘토지역 아동센터'를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바꿨으며, 사회복지시설 92 곳, 저소득층 가구 67 곳에서 이 같은 열효율 개선사업을 벌임.
- 최근에는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건물에 이중창 설치뿐 아니라 단열재, 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등도 지원하고 있음.
-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사업에 지난해만 16 억 7,000 만원을 투입했고, 이를 통해 총 159 곳에서 연간 에너지 49 만 kWh, 3,600 만원 가량의 난방비를 절감했다고 밝힘.
- 공사가 2010 년부터 열효율 개선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총 167 억원으로, 저소득층 가구 총 899 곳, 사회복지시설 799 곳이 대상이었고, 이 사업에는 사회적기업 258 개도 참여함.
- 사회 취약계층에게 건설 기술을 가르쳐 이 사업에 투입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음.

[한국일보](#)

CSR 뉴스

1. 이원욱 의원, 재생에너지선택권 선언기업과 간담회 가져

이원욱 의원, 재생에너지선택권 선언기업과 간담회 가져

2019-02-19 09:58, 이주현 기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선택권, #에너지포럼, #발족식, #이원욱

RE100 제도 구축 위해 노력할 것 약속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출범식 기념사진. (사진 = 이원욱 의원실)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 일 국회 제 2 간담회실에서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참여기관과 재생에너지선택권 사용 확대 선언기업, 관심 기업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음.
- 간담회에서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와 전력진흥과도 참석해 기업과 정부, 국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혁신 성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UNGC 한국협회, 세계자연기금 등의 기관이 참여해 RE100 제도 구축 등을 위한 행보를 견고 있음.
- 이번 간담회는 발족식 이후 첫 모임으로 이니셔티브 경과 및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삼성전자와 LG 화학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내부 현황 및 의견 공유를 통한 자리임.
- 이원욱 국회의원은 "RE100 은 이제 수사가 아닌 기업의 의지"라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전력수요자인 기업의 고충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의한 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NSP 통신](#)

2. '사회적 책임' 관심 ↑...자산운용사들, ESG 펀드 잇따라 출시키로

'사회적 책임' 관심 ↑...자산운용사들, ESG 펀드 잇따라 출시키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사회적 책임'에 관심 늘어나
한투신탁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ESG 검토

류병화 기자 | hwahwa@newsis.com

등록 2019-02-12 16:38:11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을 향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배당정책 개선 노력이 없던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KB 자산운용은 ESG 관련 펀드 출시를 검토 및 계획하고 있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SG 관련 펀드를 연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임.
-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와 협력해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에 충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 를 상장할 계획이며,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ESG 펀드도 준비하고 있음.
- '삼성 KODEXMSCIESG 유니버설증권 ETF(주식형)'을 운용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상반기 내 출시 목표로 ESG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 를 준비하고 있으며, KB 자산운용은 기존 'ESG 성장리더스' 펀드가 국내 펀드인 만큼 해외 ESG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음.

[뉴시스](#)

3. "이제는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눈 돌린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트렌드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관계가 전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이 제시됨.
- 이러한 관계 변화의 원인으로는 '연결성'의 향상으로 탐색비용과 정보 비용이 낮아져 제품 외적인 정보들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음.
- 한편, 올해 기업들의 CSR 경영 트렌드 키워드인 'BORDERLESS'(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가 △기업 내부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CSR 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강화 △주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및 범위 확장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의 형태와 범위 확장 등 3 가지 차원에서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마지막으로, 올해 CSR 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도전과제로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관리 △통합운영전략 및 체계 마련 △다양한 주체간 협력 및 공유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등이 언급됨.

[뉴스 1](#)

4. 공공기관, 인권위 권고 '인권경영' 도입 수용...인권위 "민간기업 확산해야"

공공기관, 인권위 권고 '인권경영' 도입 수용...인권위 "민간기업 확산해야"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입력 : 2019.02.19 12:00:00 | 수정 : 2019.02.19 13:45:44



경향신문 자료사진

- 지난해 8 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 개 정부부처와 1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신설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인권위가 권고한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은 물론,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기본적인 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의미함.
-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국내외 동향을 볼 때 인권경영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힘.
- 인권위는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0 년부터 인권경영에 대한 별도의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수용 입장을 밝힌 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심을 갖고 직영기업의 인권경영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함.

[경향신문](#)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2. COP/COE 제출회원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SBS
- 한국산업인력공단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UN Global Compact (UNGC) 본부의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라 2019년도부터 UNGC의 모든 영리/비영리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UNGC 한국협회의 연회비 정책도 본부 정책에 맞춰 2019년도부터 새롭게 변경되며, 새로 적용되는

신(新) 연회비 정책은 오는 3월 26일(화) 개최되는 UNGC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상정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기존 안내를 받으신 매출액 500억 이상 기업은 3월 말까지 Engagement Tier(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연회비 청구서는 정기총회 의결 이후 발행됩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